

## 여수공항 민영화 논의 성공 박람회 망치려나

지역정치권 수수방관... 대책 마련 시급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항 선진화 사업(공항 운영권 민영화)' 대상에 여수공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경제 침체와 함께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김성곤,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이양 공항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으로 전체 100점 만점에 효율성 측면 50점, 공공성 측면 15점을 각각 배정했다. 실제로 민간이양 공항 대상 선정 용역을 맡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 이 제시한 선정 기준은 ▲효율성 50점 (원가절감 가능성 20점, 수익증대 가능성 30점) ▲공익성 15점 ▲안전성 및 편의성 15점 ▲공항경쟁력·국가정책 기여·매각가능성 20점 등이다.

이 경우 현재 수익성은 떨어지나 관광산업 발전과 여수엑스포 개최 등으로 이용객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면 서로 전담 동부권 관문으로서 지역사회에서 공공성을 인정받고 있는 여수공항이 민간 이양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분석이다.

지난해 여수공항은 58여명의 직자를 기록, 14개 지방공항 중 강원도 양양공항(105억 적자)에 이어 두 번째로 경영실적이 나빴다. 반면 여수공항은 지난 5년 동안 여객증가율이 5.1%를 기록, 청주공항(7.4%)·원주공항(7.0%)과 함께 여객이 증가한 3개 지방공항에 포함됐을 뿐 아니라 화물 운송량도 1.7% 늘어나는 등 수익증대 가능성이 큰 공항으로 분류됐다.

이와 관련,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을 지낸 이용섭 의원은 "이 기준대로라면 청주공항과 함께 여수공항이 민영화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원주공항은 여객 규모가 미미하고 광주공항의 경우 군 공항으로 함께 사용하고 있어 동시 이전이 연구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무안공항은 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정부는 수익성이 떨어진다며 매입을 꺼리는 투자자를 위해 공항 내 백화점·쇼핑몰 운영권과 공항 주변 지역 개발권을 주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 중이어서 매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문제는 여수 공항이 민영화될 경우 수익 극대화를 위한 공항이용료와 주차료 인상, 카트 이용료 징수 등이 예상되고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시설투자가 불가능해지는 등 공항 활성화가 지연돼 지역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 나아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공항의 안전성 문제가 대두하는 등 여수엑스포 교통대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 같은데도 지역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적극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여수공항의 민간 이양을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청주공항이 민간이양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 청북지역 사회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사흘거리고 있다.

/북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꽃도 피고 패션도 피었습니다  
 모두 세차레 패션쇼를 개최했다.

26일 광주신세계백화점 1층 광장에서 열린 '2009 광주신세계 S/S 패션쇼'에서 모델들이 경쾌한 워킹과 함께 화사한 컬러의 봄·여름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새 봄을 맞아 브랜드별 우수 고객들을 초청,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종합보험 든 운전자도 중상해 입힐때 처벌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4조 1항 위헌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등의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관련기사 7면>

현재 전원재판부는 26일 교통사고 피해자 조모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년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가해자가 뺑소니·음주운전·과속 등 12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가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

다. 형법은 "중상해"에 대해 신체의 상해로 인해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라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중상해 교통사고의 경우 발생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살펴 정식기소와 약식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처분이 가능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종합보험 등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면책되게 한 것은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따라서 종합보험 등에 들었다고 면책하는 것은 교통사고의 신속한 처리 또는 전과자의 양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사익을 현저히 경시, 법익의 균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재가 헌법불합치가 아닌 위헌 결정을 내려 즉시 면책조항의 효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중상해의 범위와 가해자의 처벌 수위 등에 대해 법무부·검찰 등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3·1절 전국마라톤 D-2**

## “자녀 3명 이상 가구 분양가 인하”

이대통령, 검토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는 주택분양에 우선권을 주고, 분양가도 낮춰주고,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출산을 저

하가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입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택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지어서 공급하는 게 타당하다”면서 “도시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할 게 아니라 도심 내부의 공간을 활용해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배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에게 “헬기를 타고 서울 근교의 상공을 둘러보라”고 지시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도시 근교의 그린벨트에는 비닐하우스만 가득 차 있다”면서 “신도시를 먼 곳에 만들어 국토를 황폐화시킬 필요 없이 이런 곳을 개발하면 도로, 학교 등 인프라를 새로 건설하지 않고도 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1년 이상 걸리는 만큼 현재 시·도가 추진중인 사업을 파악해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표준지 공시지가 10년만에 하락

광주 -1.02%, 전남 -0.36%

올해 광주·전남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0년 만에 하락했다. <관련기사 3면>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광주시내 5개 자치구 표준지 8천757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평균 1.0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도 22개 시·군 표준지 6만 2천798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 결과 0.36% 하락했다.

광주와 전남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기는 1999년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해에는 광주가 6.22%, 전남이 4.02% 각각 상승했다.

광주시 자치구별로는 동구와 북구가 각각 1.30%, 1.72% 하락하면서 전체적인 하락률을 이끌었으며, 이어 남구가 1.11%, 광산구 0.69%, 서구 0.58% 각각 내려갔다.

광주시내 표준지 가운데 동구 총상로 2가 15-1번지 옛 나라서적 자리 공시지가가 m당 931만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광산구 동구 등림동 산 90번

지는 m당 560원으로 가장 싼 땅으로 나타났다.

전남의 경우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지인 여수와 광주·전남 공동국가 산업단지 예정지인 함평이 각각 2.24%와 1.07% 상승했지만 다른 지역은 모두 하락했다.

전남에서 가장 비싼 땅은 여수시 교동 275번지 등산용품점 자리로 m당 440만원이었으며, 완도군 소안면 당사리 산 22-82번지 섬이 m당 130원으로 가장 낮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무안 - 정사(장가계) 무안 공항 직항!!!**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객실 개편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 MBC 문화방송 후원합니다(www.kjmbc.co.kr)”  
 “기존의 택시기사들의 차원이 다릅니다”

**무안 - 정사(장가계) 직항!**

1. 무안 - 정사(장가계) 직항선 운항: 062-226-6070  
 2. 정사(장가계) - 무안 직항선 운항: 062-226-6070

062-226-6070